

## 1. 메이크업의 기원

- **장식 및 표시 기능설** : 인간심리의 구분욕구와 미적본능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 **이성 유인설** :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신체를 장식하거나 가꾸었다고 보는 가설
- **보호설** : 인간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 혹은 은폐를 목적으로 화장을 했다는 가설
- **종교설** : 주술적, 종교적 행위로서 색상을 부여하거나 향을 이용하여 병이나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행위로부터 메이크업이 시작

## 2. 메이크업의 역사

### (1) 서양의 MAKE-UP

#### 1) 고대

##### ① 이집트(BC 3200년경)

- 인류가 처음으로 사회적 표시와 미적 효과로서의 메이크업과 복식, 헤어를 말할 수 있는 시대
- 화장의 목적 - 신체를 지키고 자연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기능 외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종교의식에서 발달된 화장술
- 정교한 분장술과 의상연출, 가발 등에서 보여주듯이 계급층과 권력층들에게는 생활의 일부
- 화장료와 연고, 향유사용 - 노출이 많은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
- 색과 선을 과감하게 사용 - 화장법이 상당히 진보됨.
- 화장의 특징 - 검은 화장 떡으로 그린 선으로 눈을 강조해서 눈을 크게 만들고 눈꼬리 부분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
  - 분, 볼연지, 입술연지는 헤나(henna)나 색이 있는 꽃잎들을 으깨어 사용

- 푸른 공작석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새도우로 사용하여 눈 주위에 발랐다.
-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보호의 상징으로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 코을 사용 - 검정, 회색, 녹색, 청색 등의 색상으로 눈 화장을 하여 아름답게 꾸미려는 목적 외에 곤충을 쫓고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 남녀 모두 가발 사용 - 검정색이 주류를 이루며 다크블루나 황금색 칼라로 염색하여 사용

### ② 그리스(BC 3000 ~ BC 400)

- 기초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었고 종교의식에서 비롯하여 발달됨  
⇒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에서 미를 표현
- 향수와 화장품을 많이 사용 - 분, 새도우, 입술과 볼화장 등
- 화장의 특징
  - 백색안료를 사용하여 피부 톤을 회색 표현
  - 눈썹은 검게 하여 눈썹의 간격을 중앙으로 가까이 접근시켜 미간을 좁아 보이게 하여 가늘게 그리고 양쪽 코 선을 중심으로 조각에 가까운 윤곽을 강조
  - 입술 화장과 볼 화장은 주황색 칼라를 사용, 머리에도 다양한 장식법으로 아름다움을 발전시킴
- 단사 - 볼과 입술에 사용
- 피부병, 식이요법, 오일 마사지, 일반 목욕 등 피부를 건강하게 발달시켰다고 주장
- 히포크라테스 - 피부병 연구, 식이요법·마사지·일광욕 등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주장
- 종교적 생활 때문에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표현
- 화장품을 과학적 원리에 기초를 둠

### ③ 로마(BC 8세기 ~ 3세기)

- 그리스의 영향을 받음 - 화장료와 향수 사용
- 우유나 포도주로 얼굴 마사지, 볼, 입술은 야채에서 뽑은 염료사용  
⇒ 피부 관리와 화장을 선호
- 미용과 종교의식을 위하여 목욕을 즐김
- 화장의 특징
  - 피부 톤은 하얗게 표현
  - 눈은 안티몬으로 검게 화장하고 볼은 연단으로 붉게 칠했으며 머리카락은 금발로 염색.
  - 모발에 염색과 마사지 등 위생관리까지도 전문적으로 함
  -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으로 대표되고 있는 근대적 향장품이 출현(BC 2C)

## 2) 중세(4세기 ~ 15세기)

- 유럽의 문화를 이룩한 시기
- 머리의 관이나 장식을 중요시하여 머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동양의 영향으로 관을 착용함.
- 종교가 사람의 관심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대
- 교회에서 가발과 화장을 엄격히 금지
  -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화장을 경시하는 풍조를 보임.
  - 짧은 여자들은 머리를 느슨하게 늘어뜨리고 기혼부인은 중앙에서 나누어 땅아 양귀를 덮어 정리한 헤어스타일이 유행
- 십자군 전쟁 - 안티몬과 향유 유입

- 인도나 페르시아의 기술문화와 자료를 받아들여 연금술, 약학 등 다양한 기술 발달
- 화장학과 약학이 통일되어 영국에 보급 - 화장품, 향로의 과학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조
- 스페인 - 비누와 목욕 품 제조(8C)
- 프랑스 향료 식물을 재배하여 향료를 대량 생산(10C)
- 화장의 특징
  - 여성들은 피부 톤을 창백하고 맑고 매끄럽게 하는데 흰색과 핑크색의 수성 안료를 사용하여 창백할 정도의 하얀 피부표현
  - 눈썹은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밀거나 가늘게 활모양으로 뽑아내고 작은 자두처럼 등글고 검게 아주 가늘게 한 줄로 표현된 눈썹
  - 새도우나 입술 등 색채의 표현자체
  - 볼이나 입술에 바르기 위한 연지가 화장료와 함께 사용
- 스페인에서는 장미계의 색상연지가 사용되었고 영국과 독일에서는 오렌지색, 프랑스에서는 짙은 빨간 연지를 입술과 볼에 사용하였다.
- 이마의 앞머리를 뽑거나 밀어 넓게 가꾸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

### 3) 근세

#### ① 르네상스(16C) - 그리스·로마의 고전문화부흥을 표방한 문예부흥기

-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간 예술과 문화의 재생기간
-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해 귀족과 부유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과장되고 화려한 의복과 화장을 즐김.
- 종교적 생활보다 향장학을 연구함으로써 미에 대한 별전을 유도
- 세속적인 생활의 영향력이 종교적인 편견을 압도했으며 의복은 신분과 물질적 풍요의 표현수단
- 노화된 피부를 의학적 처방으로 관리하며, 미용적 보호를 위한 화장술 또한 개선
- 화장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원료와 향료 색소들을 개발
- 화장의 특징(색조화장은 거의하지 않음)
  - 창백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표현한 피부
  - 눈썹 털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가는 활처럼 전혀 각이 없는 완만한 아치형의 눈썹
  - 머리를 뒤로 넘기거나 머리를 깎아 이마를 넓게 하여 극도로 강조
  - 작은 꽃 모양으로 표현한 장미빛 입술과 가볍게 홍조 떤 뺨
  -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나 천으로 머리를 덮는 가발 사용
- 크고 넓은 이마로 보이기 위하여 머리를 뒤로 옮기거나 머리털을 깎아 없앴다.

#### ② 엘리자베스시대

-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도 화장품을 사용
- 얼굴마스크가 유행했던 시기
- 달걀과 백납가루, 유황을 섞어 과운데이션의 기초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
- 메이크업의 발달로 연극이 발달되었고 아울러 연극분장과 의상도 발달
- 많은 향료와 정교한 헤어스타일 가발이 유행
- 여성들은 앞 가르마를 타서 귀 뒤로 넘겼으나 나중에는 모두 뒤로 빗어 넘겨 머리장식으로 고정

- 1590년대에는 앞머리는 곱슬곱슬하게 하고 뒤로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높이 들어 올린 하이롤(High Roll)스타일이 유행
- 화장의 특징
  - 얼굴을 달걀과 유황 등을 섞는 페이스트를 발라서 흰 가면처럼 회게 하고 창백하게 표현
  - 눈썹은 르네상스 시대보다 더 길고 가늘게 표현
  - 붉은 납 가루를 사용하여 노즈 쇄도우를 많이 줘서 높은 코를 선호
  - 붉은 입술, 붉은 머리카락, 강조된 이마 등이 이 시대의 특징

### ③ 바로크시대(17C)

- 향장계를 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치료를 다루는 경향과 패션과 어울리도록 단순히 외양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시기
- 남성과 여성 모두 과도한 장식과 화장을 함
- 가발이 성행 - 머리 염색
- 귀족들 - 딸기와 우유로 목욕
- 많은 양의 화장품과 정교한 의상 - 사치스러운 생활과 화장술을 사용
- 화장의 특징
  - 진한 화장을 하여 백납으로 만든 인형처럼 보이게 함
  - 깨끗하고 밝게 강조한 눈썹
  - 홍조를 띠거나 붉은 연지를 칠한 뺨
  - 모양과 색깔이 장미꽃 같은 입술
  - 포동포동하고 탄탄한 팔, 어깨보다 넓은 둔부, 살이 찌고 등근 용모
- 뷰티 스폭 - 눈 밑 입가 등에 점을 찍어 애교를 상징
- 머리카락은 블론드 색으로 염색하거나 깨끗이 깎고 가발을 썼다.

### ④ 로코코시대(18C)

- 화장품의 제조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화려하고 무분별한 화장이 극에 달함
- 화려한 헤어스타일의 가발이 성행
- 머리형을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것의 극치를 이르게 하여 높이와 기교에 있어서 가능성의 극한점까지 도달한 헤어스타일 유행
- 화장의 특징
  - 두텁게 화장하고 얼굴을 매우 회게 강조
  -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 둑글게 볼 화장
  - 깨끗하고 밝게 강조한 눈썹
  - 장미꽃 봉우리 같은 눈썹
  - 뺨이 들어간 부분에는 플럼퍼라는 패드를 넣어 뺨을 통통하게 함
- 1789년 -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귀족사회가 붕괴됨으로써 건강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메이크업으로 전환

### ⑤ 빅토리아 시대( 1831~1901)

- 역사상 가장 검소하고 정책적으로 제한된 시기
- 자연적 피부색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 -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 ⑥ 근대(19세기)

-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술 개선
- 화학과 제조술이 발달하여 산화아연으로 만든 새로운 분을 공급
- 인위적이고 유해한 화장품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
- 비누의 등장으로 위생과 청결,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크림이나 로션 등을 이제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질도 향상되고 제품도 다양
- 화장의 특징
  - 얼굴에 색상을 부여함 없이 자연스러운 미의 강조
  -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눈은 길고 가늘게 아이라인을 그림
  - 볼연지와 입술화장이 메이크업의 중심으로 약하게 바름.
  - 볼연지의 위치를 위로 올라가게 함.

## (2) 한국의 메이크업

### 1) 고대의 MAKE-UP

- 시초 –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원시형 장신구에서 엿볼 수 있음
- 단군신화에도 원시화장의 흔적이 엿보인다.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으라고 한 것은 고대사회에 지배층이 훈 사람이었으므로 훈 피부로 변하기 위한 주술이라는 견해(백색피부 – 지금도 훈 피부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관습이 남아 있으며, 알타이 계통의 최초 인간은 훈 사람이라는 신화가 있다.)
- 쑥과 마늘은 양념이나 약재로 쓰이지만 민간에서는 예전부터 쑥을 달인 물로 목욕을 하여 피부의 미백 효과를 기대했고 찢은 마늘을 꿀과 섞어 얼굴에 발라 씻어 냄으로써 피부 미백 외에 잡티,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기도 함
- 부족국가 시대
  - 읍루 사람들 : 겨울에 돋지기름을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하여 동상예방  
(돛지기름은 동상·해, 그을음·눈, 그을음의 예방 및 피부의 연화작용이 뛰어나 유럽에서도 크림의 원료로 오랜 기간동안 이용되었다.)
  - 말갈 : 오줌으로 세수하여 피부 미백의 수단으로 삼음
  - 삼한 : 변한인들이 새긴 문신도 원시치장의 한 형태로 기록이 있음
- Tip 문신은 신에 대한 숭배, 종족을 표시하는 수단이나 위장을 위한 표현 방법으로 발달
- 고대의 한국인들은 겨울에 피부를 보호할 줄 알았고, 계급과 신분에 따라 치장을 달리 하였으며, 돌, 조개껍데기, 짐승의 뼈로 장신구를 만들어 패용하면서 훈 피부로 가꾸기도 했던 것 같다.

### 2) 고구려인의 MAKE-UP

- 고분벽화 등을 통해 뚜렷한 당시의 화장형태 등을 살필 수 있음
- 평안도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 상  
⇒ 여인의 머리에 관을 쓰고 뺨과 입술에 연지화장을 함

- 쌍영총 고분벽화의 여인상  
⇒ 여관 혹은 시녀로 보이는 주인공들이 연지화장을 함
- 머리를 곱게 빗고, 눈썹을 짧고 뭉툭하게 다듬었으며, 뺨에 연지화장을 하고 있다. 또한 무인들은 머리 카락을 뒤로 틀고 연지를 이마에 바르고 금당으로 머리를 꾸몄으니 신분·빈부의 구별없이 치장에 열중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백제인의 MAKE-UP

- 구체적인 기록이 적어 메이크업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
- 일본의 화한 삼재회에 일본이 백제로부터 메이크업테크닉과 제조기술을 배워간 다음 메이크업을 시작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메이크업 테크닉이 상당히 발전했으리라 추측
- 백제인들이 짧은 화장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화장기술의 표현이라 추측
- 시분무주 – 분은 바르되 연지는 바르지 않음

### 4) 신라인의 MAKE-UP

- 영육일치사상이 국민정신의 바탕 – 남녀가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
  - 영육사상으로 인하여 일찍 화장과 화장품이 발달
  - 백색 피부를 선호
  - 남성화랑들도 여성들 못지않은 화장을 하고, 귀고리·가락지·팔찌·목걸이 등 장신구로 장식
  - 통일이전 – 메이크업을 짧게 하는 것이 유행
  - 통일이후 – 여성의 복제를 중국식으로 바꿀 때 짙은 색조화장도 함께 들어와 메이크업이 다소 화려해지고 동백이나 아주까리기름을 짜서 머리를 치장하고 백분으로 얼굴을 회개 하였으며 이마와 뺨, 입술에 잇꽃 연지를 발랐다.
  - 미묵 – 굴참나무, 너도나무 등의 나무 쟈를 유연에 개어 눈썹 그리는데 사용
- ☞ Tip |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여성들이 불교의 영향으로 짧은 화장을 했으며, 평면화장에 그침

### 5) 고려인의 MAKE-UP

- 신라인의 문화가 전승 발전됨 – 영육일치의 미의식 그대로 전승
  - 고려의 메이크업 문화는 외형상 사치스러워졌고 내면적으로는 탐미주의 색채가 농후
  - 손이나 얼굴에 발랐던 액체상태의 화장품인 면약이 널리 사용
  - 신분의 따른 이원화된 메이크업 테크닉이 자리 잡음
    - 여염집 여성 : 짧은 메이크업이 유행
- ☞ Tip | 고려도경 : 향유 바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분은 바르되 연지는 즐겨 바르지 않았다.  
(기생 : 짙은 분대메이크업이 성행)
- ☞ Tip | 분대메이크업이란?
- 분을 하얗게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까맣게 그리며 머릿기름은 번질거릴 정도로 많이 바른다.

- 분대화장 역시 평면화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생들의 직업적인 의식화장이 조선시대에까지 계승되고 여염집 여성들은 얇은 화장을 고수하여 고려시대부터 화장경향이 이원화되고, 기생들의 분대화장으로 인하여 화장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겨나기도 했다.
- 기생을 분대라고 부를 만큼 기생의 상징적인 치장
- 분대화장은 화장에 대한 기괴성향·경멸감을 발생시킨 반면에 화장의 보급과 화장품 발전에 기여

## 6) 조선시대 MAKE-UP

- 조선시대 전기의 지배층은 고려시대 초기의 지배층이 하였던 것처럼 검약(儉約)을 강조
- 유교윤리 장려 – 여성의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부용’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메이크업은 천한 행위로 인식
- 화장개념의 세분화가 촉진
- 궁녀, 기생들의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테크닉이 발달 – 분대메이크업은 기생의 상징
- 여염집 여인 – 평상시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연회나 나들이 때만 메이크업을 하고 분대메이크업은 기괴함으로 여염집 여성들의 생활화장과 기생·궁녀 등 특수층 여성의 의식화장이 더욱 뚜렷해지고, 여염집 여성들의 생활화장도 평상시의 청결위주와 혼인, 연회, 외출 시의 화장으로 세분되었다.
- 메이크업제조기술이 발달
  - 규합총서에 여러가지 향 및 화장품제조방법이 수록
  - 백분 : 분꽃을 심어 그 씨앗을 그늘에 말려 빵아서 만듬
  - 연지 : 홍람화(잇꽃)을 직접 재배하여 꽃잎을 거두어 말려서 빵아 만듬
  - 미안수 : 수세미줄기에 상처를 낸 다음 즙을 받아서 화장수로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데 이용
- 매분구 – 화장품 행상
- 보염서 – 궁중에 화장품 생산을 전담하는 관청

### ☞ Tip ‘화장’의 고유어휘

- 담장 :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가다듬는 정도의 담박한 멋 내기, 단정한 옷차림+단아한 빗질
- 농장 : 담장보다 짙은 상태의 멋 내기, 색채화장을 한 경우와 비슷
- 염장 : 짙은 상태의 색채 화장이되, 요염한 색태를 표현한 경우
- 응장
  - 농장과 유사하나, 더욱 또렷하게 꾸민 상태로서 신부의 화장이 이에 해당
  - 담장, 농장, 염장이 평상시 화장임에 반하여 응장은 혼례 따위에만 하는 의례차림
  - 신부의 얼굴치장 외에 장신구와 옷치장이 화려한 꾸밈일 때는 응장성식이라고 표현
- 야용
  -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분장의 의미를 내포
  - 본래의 아름다움을 바탕삼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박색을 미인으로 치장한다든가, 노인을 젊은이처럼 몰라보게 치장하는 따위
- 성장 : 야하거나 화려한 경우를 가리킨다.
- 장식 : 피부 손질과 얼굴꾸밈, 옷차림, 각종 장신구 치례를 골고루 갖추는 행위

### ☞ Tip ‘화장품’의 고유어휘

- 지분

- 일반적인 화장품을 가리키는 말로 연지와 백분을 줄인 말로서 두가 화장품
- 화장품을 총칭하는 어휘로 사용
- 분대 : 백분과 눈썹먹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화장품을 총칭하는 어휘로 더 많이 사용
- 장령 : 화장품과 화장용구(경대, 빗, 빗치개, 거울 등)일체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

## 7) 개화기 이후 MAKE-UP

### ① 1900년 ~ 1930년대

-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이후 신식메이크업 테크닉과 화장품이 소개됨
- 처음에는 주로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유입
- 한일합방(1920년) 이후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으로부터 화장품이 유입됨
- 수입화장품 - 크림, 백분, 비누, 향수
  - 포장과 품질이 우수하여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 우리나라 화장품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자극제
- 1922년 - 1916년 내수공업으로 제조되기 시작한 박가 분이 정식으로 제조 허가받음. 이 무렵 하얀 얼굴에 반듯한 이마의 잔털을 제거하고 박가 분을 물에 개어서 하얗게 벌랐다.
  - 황화(연지), 배달기름(머릿기름), 연부액(미백로션), 유액(밀크로션), 연 향유, 밀기름 등도 잇따라 시판
- 1933년 - 새로운 메이크업 테크닉과 바니싱크림 등의 신식화장품 소개
  - 입술연지를 아랫입술에만 빨갛게 바르고 눈썹을 초승달모양으로 그리는 화장법이 유행

### ② 1940년대

- 화장에서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
- 1945년 - 8.15해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
- 일제 화장품의 범람과 일제 화장품 광고의 홍수는 일본의 폐망으로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에 에레나 크림, 바니싱 크림, 모나미 크림, 스타 화장품 등의 국산 화장품이 생산
- 화장의 특징
  - 얼굴을 희게 하고 눈썹은 반달 모양
  - 번들거리고 눈 화장(마스카라와 아이라인으로 강조함)을 강조한 부분 화장
  - 불연지와 붉은 입술을 하는 것

### ③ 1950년대

- 6.25이후 수입화장품, 밀수화장품, 미국의 PX 유출품 범람이 가속
- 1956년 처음으로 프랑스 '코디'사와 기술 제휴로 코디분이 국산화되어 품질을 혁신
- 오드리 헵번 등 영화 스타의 모방이 해어, 화장, 복식에 유행

### ④ 1960년대

- 정부의 국산 화장품 보호정책에 따라 화장품 산업은 정상 궤도에 진입, 국산 화장품 생산이 본격화
- 색조화장품을 생산
- 메이크업 테크닉에 변화가 일어남

- 바니싱 타입의 크림과 백분의 소비량이 격감한 가운데 액상 색분(파운데이션)의 수요가 급증, 입술연지가 고형으로 바뀌고 아이섀도우 등장에 색채화장법이 시작
- 화장의 특징
  - 자연스런 피부표현으로 기초화장을 중심으로 한 피부 표현에 역점을 두고 수정 화장이 더해져 세련된 느낌
  - 인조 속눈썹의 사용으로 꾸민 듯한 느낌

## ⑤ 1970년대

- 화장품 회사의 메이크업 캠페인으로 색채 화장에 대한 거부인식을 불식시키고 입체 화장이 생활화
- 의상에 맞추어 화장하는 토템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이 등장
- 의상의 유행이 화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샴푸, 보디제품, 팩 제품 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 인조속눈썹, 아이라이너, 매니큐어가 보급되어 부분화장이 강조
- 다양한 색채의 파운데이션과 3색 분이 제조, 여러 가지 색조의 입술연지가 유행
- 1972년에 복고풍의 의복이 유행하게 되자 화장에 있어서도 복고풍이 나타남.
- 1976년에는 패션과 함께 동양무드가 가미된 화장을 선보였고, 색상은 부드러우면서도 침착한 색조 올리브 그린, 크림 베이지, 브라운, 오렌지, 블루, 더블, 핑크색이 주류
- 1978년부터 미용 캠페인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이 토탈 패션의 한 부분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으며 계절별로 봄은 입술화장, 여름은 자외선 차단, 가을은 눈 화장, 겨울은 기초 피부순질에 중점을 둔 미용법이 정착

## ⑥ 1980년대

- 메이크업 인구의 증가와 메이크업의 고령화·저령화 현상이 촉진, 남성의 메이크업이 보급됨
- 해외동포의 귀국과 해외와의 교류도 빈번하여 세계의 패턴 소식이 동시에 한국에도 유입
- 컬러 TV의 방영으로 색채에 대한 수요가 복식과 화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부분적으로 수입 자유화된 선진국의 다양한 색채화장품 수입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선택하는 지적 소비자 시대
- 색조 화장은 더욱 세련되어지고 다양해졌으며 동양인의 오클계 피부에 잘 조화되는 코랄색상(핑크와 오렌지의 중간)이 유행하고 갈색을 주조색으로 황금색 펄과 벽돌색의 조화로 세련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색조화장이 유행
- 컬러 TV의 대량보급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색상 사용이 다양
- 화장품도 품질이 향상되어 1983년 이후 화장품의 수입자유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1986년까지는 전면 수입 자유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메이크업 정보가 많이 유입 → 일본보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
- 아이섀도우 화장의 더블패턴(아이홀 화장)으로 평면적인 동양인의 얼굴에 입체감을 줌

## ⑦ 1990년 이후

-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 패션의 흐름과 더불어 메이크업도 유행을 창출하고 선도하는가 하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하게 여김
- 에콜로지의 경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면서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계열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러운 색조가 강세를 보임.

- 각자의 개성이 강조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특징이 화장품 회사 주도하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시작
- 혼합되는 색의 강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무수한 색감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채 예술의 감각으로 눈, 불, 입술 화장을 표현
- 메이크업 경향, 헤어스타일, 모드 등 미용에 관련된 유행의 많은 부분을 광고와 드라마의 주인공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
-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것이 현대의 주도적인 흐름인 만큼 메이크업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
-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패션경향은 어두운 무채색 계열로 몸의 곡선을 가린 미스틱하고 퇴폐적인 분위기와 함께 국내에서 오리엔탈리즘과 결합되어 풍부하고 깊이있게 표현
- 오리엔탈 패션테마에 맞추어 한국적인 것을 모던하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의상과 함께 창백한 피부 톤, 가는 아치형의 검은 눈썹, 붉은 립스틱 메이크업도 나타남



# 테마에 따른 메이크업 이론

## 1. 시간에 따른 메이크업 분류

- 봄 메이크업 – 싱그러움과 생동감. 엘로우, 오렌지, 그린 계열이 어울림.
- 여름 메이크업 –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의 화이트, 실버, 블루, 옅은 보라나 핑크 계열.
- 가을 메이크업 – 풍요로움이 연상되는 따듯한 느낌의 배색, 골드, 베이지, 브라운, 붉은 자주.
- 겨울 메이크업 – 화려하고 여성스럽게 표현. 강렬한 컬러도 무난하게 소화됨.

## 2. 연령에 따른 메이크업

### (1) 20대 메이크업

- 20대는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피부와 인상이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패턴의 메이크업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다.
- 유행이나 계절, 의상색 등을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한다. 원 포인트 메이크업이 간결하고 생동감 있게 보인다.
- 두터운 메이크업은 피한다.

### (2) 30대 메이크업

- 30대에 접어들면서 수분 부족과 탄력 저하를 느끼게 된다.
- 유분과 수분이 적당히 함유된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두텁지 않게 바르며, 기미나 잡티 등도 컨실러로 정리한다.
- 20대에 비해서는 립 메이크업이 강조되는 편이 좋다.

### (3) 40대 메이크업

- 중년의 아름다움이 풍기고 멋스러움이 배어나는 연령대이다. 피부는 점차 탄력을 잃어가게 되어 건조하고 주름이 눈에 띄게 된다.

- 주변의 노화가 먼저 오게 되므로 눈 화장 보다는 입술 화장을 강조하는 것이 젊고 세련되어 보인다.
- 연령대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

#### (4) 50대 이후 메이크업

- 50대가 되면 피부가 쳐지고 주름이 자리잡기 때문에 화장을 조심스럽게 꼼꼼히 해주어야 한다.
- 야윈 사람은 군데군데 얼굴이 퍠이고 주름이 많아지고, 살이 많은 사람은 살이 쳐지면서 얼굴형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각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3. 시대별 유행 메이크업

#### (1) 1900~1909년

- 영화가 시대 여성들의 유행을 리드하게 됨.
- 영화에 비친 여배우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면서 획일적인 유행이 창조됨.
-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에서 보여진 오리엔탈 봄이 일어나게 됨.
- 일부 선도적인 여성들에 의해 시도되어진, 옆으로 길어 보이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 사이에 황색이나 강렬한 색을 바르는 오리엔탈 분위기의 눈 화장이 유행. 핑크와 붉은 입술 화장 등장.
-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썹을 검게 칠하는 기법의 눈 화장이 유행
- 숯으로 그린 듯 새까만 일자형 눈썹.
- 유행 헤어스타일은 소프트 풍파두르(볼륨감 있는 올림머리)

#### (2) 1910년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짐. 여성운동이 본격화되고, 참정권 획득.
- 진보적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단발머리가 유행하고, 젊은 세대는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찾게 되어 활동성 있는 의상이 등장하기 시작함.
- 대표적 여배우는 ‘테다 바라(Theda Bara)’로, 눈썹은 새까맣게 일자형으로 그리고 눈 주위로 검은 음영을 강하게 넣었다.

#### (3) 1920년대

- 영화가 본격적으로 대중 오락문화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중스타가 등장하게 됨.
- ‘클라라 보우(Clara Bow)’는 창백한 입술, 형클어진 곱슬머리, 헤어밴드 아래로 크고 게슴츠레한 눈, 빨간 앵두 입술로 성적 매력 발산.
- ‘글로리아 스완슨’은 세련된 도시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초승달처럼 굽은 눈썹, 윤곽이 뚜렷한 입술,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 깃털 같은 속눈썹을 달았고, 애교 점을 찍어 널리 유행시킴.
- 착한 이미지의 화장법으로 쳐진 눈과 눈썹이 특징. 볼터치나 노즈 쇄도는 거의 볼 수 없었고 밀가루를 바른 듯 희고 창백한 느낌으로 표현.

#### (4) 1930년대

- 20년대에 비해 훨씬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게 됨. 볼터치가 눈에 두드러짐.
-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덮고, 턱이 좁아 보이도록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발라줌.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흰색과 검정(이나 청색)의 아이섀도우를 발랐다.

- 눈썹은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뽑고 가늘고 기교적으로 그렸으며 인조눈썹과 마스카라로 강조.
- 크고 선명하게 반짝이는 빨간색의 립스틱에 맞춰 빨강색 네일 애나멜이 유행하기도 함.
- 대표적 스타로는 그레타 가르보, 마릴린 디트리히, 진 할로우, 존 크래포드 등

#### (5) 1940년대

- 전쟁 중 군인의 영향으로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스타일로 등장.
- 두껍고 또렷한 곡선형의 관능적인 눈썹, 아이펜슬로 눈 꼬리 부분을 치켜 올린 눈 화장이 유행.
- 잉글리드 버그만, 리타 헤이워드, 에바 가드너 등이 대표적 스타.

#### (6) 1950년대

- 앞머리를 짧게 잘라 내려놓은 실용적인 짧은 헤어컷 스타일인 ‘랩번 스타일’이 등장. 소녀같은 이미지의 굵은 눈썹의 메이크업을 유행시킴.
- ‘소피아 로렌’은 굵고 각진 검은색의 눈썹과 아이라인을 강하게 치켜 올린 강한 이미지를 강조.
- ‘마릴린 먼로’는 밝은 색의 피부 톤에 약간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했는데, 눈썹 산을 바깥쪽으로 치켜 올리고 길고 가는 아이라인, 눈 바깥쪽으로 길게 붙인 속눈썹, 보트형의 붉은 입술, 입가의 애교점 등 섹시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선보임.

#### (7) 1960년대

- 새의 날개 형의 눈썹색상은 최대한 흐리게, 아이홀을 강조한 새도우(바나나 기법), 외곽을 깊게 그린 두터운 아이라인에 아주 길고 촘촘한 눈썹을 붙여 주어 눈을 강조함.
- 옅은 색의 입술.
- 브리짓드 바르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모델 트위기

#### (8) 1970년대

- 60년대에 비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등장.
- 아이홀을 강조하는 새도우를 하고 아이라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 다양한 색상의 립 메이크업.
- 70년대 후반에는 광택있는 볼 화장과 반투명 립글로스 등장.
-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며 평크 스타일, 짐시 스타일, 메탈 룩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아방가르드 스타일 등이 공존함.
- 평크족의 검은 메이크업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강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
- 대표적인 여배우는 까뜨린 드뇌브

#### (9) 1980년대

- 화려하면서 강한 이미지의 메이크업 유행.
- 두껍고 강한 눈썹, 선명하고 빨간 입술 등 눈과 입을 모두 강조한 브룩 쉴즈.
- 80년대 중반에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섹시하고 진한 화장이 유행.
-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의 에로틱한 관계리 룩과 육감적인 화장이 영향을 줌.
- 80년대 후반에는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의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

#### (10) 1990년대

-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형태.
- 에콜로지와 복고풍의 영향으로 원색보다는 그린이나 브라운 같은 자연색이 인기.
- 10대에서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누드 메이크업이 유행.
- 90년대 말 무렵에는 펄과 반짝이를 이용하는 사이버 분위기의 메이크업 등장.
- 나만의 개성이 부각되면서 아방가르드식의 메이크업이 속속 등장.
- 이자벨 아자니, 줄리아 로버츠, 기네스 월트로 등 여배우뿐만 아니라 모델들이 패션 리더로 각광받기 시작 함. 나오미 캠벨, 클라우디아 쉬퍼 등.

### 4. 웨딩 메이크업

#### (1) 신부 메이크업

일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목받고 싶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준비를 통한 완벽한 테크닉이 요구됨.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신부의 연령, 피부색과 피부 상태, 선호하는 컬러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드레스의 디자인과 색상, 결혼식 장소의 조명에 관해서도 미리 검토한다.

#### (2) 신랑 메이크업

촬영을 위해 신랑도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신랑 메이크업 시 유의할 사항은 ‘남자 메이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상에서 신부와의 스킨 톤을 맞춰주면서 신랑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 윤곽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이지 마치 신부 메이크업처럼 단점을 수정하고 색을 입히는 것처럼 해서는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3) 신랑 신부의 어머니 메이크업

식장에서 주로 한복을 입고 계시는 양가 어머님들도 전문인에게 메이크업을 의뢰해 오는 일이 잦다. 그러나 신부처럼 메이크업을 해서는 안된다. 같은 여성임에는 틀림없지만 연령을 고려해서 나이에 어울리는 우아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 5. 일반 뷰티 메이크업

#### (1) 내츄럴 메이크업

- 모든 메이크업 테크닉의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 모든 연령,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가장 대중적인 메이크업을 말한다.
-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
- 색감이 드러나기보다 선과 면을 정리하는 느낌이다.

#### (2) 글로시 메이크업

- 과거에는 카메라 상에서 피부가 번들거려 보인다는 이유로 뽀송뽀송하고 매트한 메이크업이 선호되었다.
- 최근에는 피부 톤이 촉촉하고 윤기 있게, 때로는 반짝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글로시(glossy)하게, 샤이니(shiny)하게 표현하는 추세다.

- 매트한 메이크업에 반해 끈적이거나 촉촉하게 젖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메이크업이다.
- 유분기가 있는 듯한 메이크업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로 보이게 하기도 한다.
- 펄이 함유된 파우더, 샐도우, 립스틱과 립글로스가 주로 쓰인다.

### (3) 펄 메이크업

눈이 부어 보이는 듯한 동양인의 얼굴에는 펄이 가미된 화장품 역시 금기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펄이 주는 신비함, 세련됨, 화사함 등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유행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계절에 관계없이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 (4) 썬탠 메이크업

- 보통의 메이크업과는 반대로 피부 톤을 어둡게 하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 남성 메이크업, 스포츠 메이크업, 여름 시즌 제품의 광고 메이크업으로 많이 응용된다.
- 썬탠을 한 피부에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썬탠한 듯이 보이도록 하는 메이크업이다.
-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므로 얼룩져 보이기 쉽다. 얇게 여러 번 쫀쫀하게 펴 발라 완벽하게 실제 피부를 커버해야 한다.

### (5) 누드 메이크업

- 화장을 안 한 듯이 하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 내츄럴 메이크업에 비해 수정이나 색감을 거의 느낄 수 없다.
- 베이비 모델, 어린이 모델, 혹은 세안용 목욕용 제품 광고에 응용될 수 있다.

## 6. 패션 메이크업

예술사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사조가 있다. 시대의 흐름을 각종 미의식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14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황폐화 혼란을 가져온 시기였다. 이 시기에 생겨난 사조가 표현주의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정신적인 위기의 시대이자 예술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표현주의는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원초적 이상세계의 동경, 인간 존립을 중시하는 인문주의적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대에 부합하는 유행사조를 알아야 메이크업의 유행도 알 수 있다.

화려한 조명과 모델들의 워킹 그리고 독특한 메이크업이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는 현대에 이르러 그 형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개성화되어 가고 있다. 초기의 패션쇼는 단순히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에 불과 했지만 갈수록 조명과 무대, 음악, 미용 등 전문 분야의 완벽한 조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메이크업은 시대를 대변하는 유행을 이끌어 가면서 내츄럴한 메이크업에서 아트 메이크업까지 패션이 요구하는 대로 폭넓은 표현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메이크업은 패션 산업의 발달에 있어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이다. 패션 메이크업도 패션쇼 메이크업, 의류 광고 메이크업, 비주얼 메이크업 등 여러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무대 메이크업으로서의 요소를 배제한, 단순 트렌드별 특징에 대해 고찰해본다.

### (1) 한복 메이크업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선이 굽고 화사한 색상으로 여성스럽고 화려하다. 그러므로 한복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곡선과 색상에 조화되는 우아한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색상 선택을

절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유사색 계열의 메이크업이 무난한데, 소매의 끝동이나 고름색, 치마색을 고려하여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면 된다.

#### (2) 에스닉(Ethnic) 메이크업

에스닉 혹은 세계 여러 나라 민속 고유의 의상과 염색, 직물, 자수, 악세사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으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이그조틱(exotic), 트로피컬(tropical), 포클로어 분위기의 패션이 포함된다. 종교적, 주술적 의미가 가미된 토속적이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패션을 말한다. 종교 의상, 잉카의 기하학적 문양, 인도의 사리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과 티벳, 부탄의 전통 무늬인 에스닉 샤파드, 케냐 스트라이프 등이 살롱 스커트나 셔츠, 실내복에 응용되었다. 녹색, 파란색, 인디고 블루 등 자연의 색과 천연의 소재를 사용하며 판탈롱 펜츠나 차이나 칼라 등이 사용된다.

메이크업 역시 민속풍의 스타일과 맞게 붉은 계열의 색상과 볼 화장을 강조한다.

#### (3) 미니멀 메이크업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장식적인 디자인 기능을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의 선정적인 옷. ‘최소한도의, 최소’라는 minimal에 ‘ism’을 덧붙인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주의’라는 의미로 미술과 음악분야에 처음으로 대두되어 사용되었다. 패션에서는 최소한의 옷으로 홀륭한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메이크업에서는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절제된 메이크업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드 메이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4) 로맨틱 메이크업

흔히 ‘파스텔 메이크업’이라고도 한다. 화사한 공주풍의 의상에 어울리는, 포근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메이크업이다. 엘로우, 코랄, 핑크, 오렌지, 엘로 그린, 스카이 블루 등을 저채도, 고명도의 소프트한 톤으로 조절하여 의상색과 조화되게 사용한다. 소녀적인 이미지와 짙고 화사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계절적으로는 봄에 많이 선호되는 패션이다.

#### (5) 엘레강스(Elegance) 메이크업

우아함, 고상함, 단정함 등 품위있는 이미지를 지향하는 클래식한 패션을 말한다. 넓게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페미닌룩을 대표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페미닌풍의 클래식한 패션을 말한다. 1950년대에 유행했는데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크리스챤 디오르, 샤넬, 발렌시아, 피에르 발만, 입생 로랑, 롤리타 렘페카 등이다.

영화 “에비타”의 주인공 ‘에바 폐론’은 당시 디오르의 옷을 주로 입었던 실제 인물로 극중 마돈나의 의상은 그 시대의 의상을 재현한 것이다.

샤넬 슈트와 같은 진품(오센티크)을 중심으로 하는 오센티크 엘레강스, 아이비룩에 현대적인 엘레강스를 더한 프레피 룩, 남국 이미지의 트로피칼 엘레강스 등이 있다.

#### (6) 페일(Pale) 메이크업

‘얇다, 약하다, 흐리다’라는 의미로 ‘창백한, 생기 없는’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흰빛이 많이 도는 메이크업이다. 썬탱 혹은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야위고 소녀적인 이미지의 패션 모델들이 선호되던 유행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 (7) 평키(Punky) 메이크업

펑크(punk)란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소녀), 끗내기’라는 의미로 미국에서 발생되어 영국 런던의 젊은이들이 정착시킨 패션의 한 주류이다. 1970년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의 구체적인 표현 현상으로 너덜너덜 찢어진 청바지, 형형색색 기괴한 머리와 메이크업, 쇠사슬 체인과 안전핀 등을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의 포기를 암시하며 공격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즐겨하였다. 그러나 반항과 불쾌감을 주는 공격성을 기본으로 하는 70~80년대의 펑크는 기존의 미의식에 도전하며 다양한 조류의 포스트모던 감각과 합류하여 나름의 스타일을 창조하며 모드나 스타일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의미에서 현대 패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 (8) 비비드(Vivid, 혹은 Bright tone) 메이크업

‘선명한, 산뜻한, 발랄한, 강렬한’의 의미를 가지며 펑크, 엘로우, 오렌지, 그린 등 선명한 원색의 색도우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생기 있게 연출하는 메이크업이다. 캐주얼 의상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 (9) 아방가르드(Avant-Garde)메이크업

아방가르드 패션은 과거 1960년대 옵아트(Op Art)의 경향이 발전된 것으로 전위적이고 극히 예술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뷰티 메이크업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의 독립된 작품이라 여겨질 정도로 독특한 메이크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패션의 작품성을 부각시키고 전체적인 이미지의 완성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일반적이거나 통계적인 메이크업이 아니라 컨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상만큼 화려하거나 지나칠 만큼 독특함을 주기도 하고, 의상을 위해 훨씬 단순하고 집약된 이미지만을 나타내는 한 획의 선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런던 컬렉션을 이끄는 ‘알렉산더 맥 콘’의 1999년 패션쇼에서는 화이트 메이크업을 한 모델들이 미래적인 눈의 나라 공주 같은 연출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패션 사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메이크업의 표현에 있어서도 테크닉이나 소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 7. 미디어(Media) 메이크업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매체(媒體), 수단(手段)이라는 뜻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개, 간접적, 일방적으로 많은 사회정보와 사상(事象)을 전달하는 신문, TV, 라디오, 영화, 잡지 등이 대표적이다. 매체와 수단에 따라 신문, 잡지, 도서 등의 인쇄매체와 TV, 라디오, 영화 등의 시청각 매체(비인쇄 매체 또는 전파 매체)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미디어메이크업이란 인쇄매체와 전파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광고, CF, 카탈로그, 잡지, 화보)의 미디어에서 행해지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미디어 메이크업은 얼굴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메이크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TV, CM, 드라마, 가수, 영화, TV 토론회의 패널, 카탈로그의 모델, 잡지의 화보 등 모든 매체에서 필요한 메이크업은 그 매체와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창출하는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모델을 예쁘게 보이기 위한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의 눈이 필요한데,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 (1) 미디어 메이크업의 종류

전파 매체와 인쇄 매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전파 매체 – 영화, 드라마, 뮤직 비디오, CF, 토론회, 뉴스, 각종 쇼 프로그램
- 인쇄 매체 – 패션 카탈로그, 백화점 전단 광고, 잡지의 화보 등.

미디어 메이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 잘 알아두도록 한다.

### (2) 광고 사진 메이크업

광고 사진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광고의 목적과 성격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메이크업과 병행해서 의상, 헤어스타일, 조명, 카메라,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스텝들과 사전에 토의 및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1) 컬러 사진 메이크업

자연광에서의 촬영이 가장 좋으나 스튜디오 촬영시 피부색과 색상, 조명의 변화 등에 유의한다.

#### 2) 흑백 사진 메이크업

흑백 사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색상의 제한으로 인해 모델에게 시술한 색조 메이크업이 흑백 사진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미리 알고 색상 선택과 농도 선택을 하여야 한다. 모노톤으로 매트한 표현을 하며 명암법의 원리(명도 차이에 의한 밝고 어두운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TV 메이크업

영상 메이크업의 한 분야로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전달매체이다. TV 메이크업은 그 특성상 무대나 영화보다 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 시청자의 눈에 비쳐지게 되는데 이 때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는 조명 기술, 영상의 기술적인 특성과 컬러의 채색, 수상기의 재생 특성, 카메라 화면 튜브의 재생 특성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과 장치 및 소도구색, 의상의 색상, 무늬 및 질감이 주는 영향 등 미술적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재현 색을 염두에 두고 색채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피부 표현에서 하이라이트는 베이스보다 명도가 3~4도 밝고, 쇄도우는 3~6도 정도 어둡다.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라데이션에 유의해야 한다.



# 메이크업 테크닉 및 자세

## 1. BASE MAKE-UP

### (1) 메이크업베이스(Make-up Base)

#### 1) 기능

- 색조화장품으로부터 피부보호
- 파운데이션의 퍼짐성과 밀착력을 좋게 함으로써 지속력 높여줌
- 피부색을 보완해주고 안색을 정리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 2) 종류

- 리퀴드 타입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가벼운 화장을 할 때나 지성피부에 적합
- 크림타입 : 피부를 두껍게 커버하고자 할 때나 건성피부에 적합

#### 3) 메이크업베이스의 색상

색상	적합한 피부
그린색	전체적으로 잡티가 많거나 울긋불긋한 피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핑크색	창백한 피부에 혈색을 부여하여 화사한 피부색을 표현
흰색	피부를 투명하고 밝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
옐로우	다소 검거나 붉은 피부에 적합하며 어두운 피부를 중화시켜 자연스러운 혈색을 줌
블루색	얼굴의 붉은 기를 중화시켜 피부를 더욱 희게 표현
보라색	노란 피부를 중화시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오렌지색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

## (2) 컨실러(Concealer)

### 1) 기능

- 눈 및 다크 서클, 붉은 반점, 기미나 주근깨 등 기타 피부의 결점을 커버하고자 할 때 피부 톤보다 1~2톤 밝은 것을 사용
- 피부의 패인 부분, 모세혈관 확장피부를 커버해줌

### 2) 종류

- 리퀴드 타입 : 수분함량이 많고 얇게 표현되므로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에 적합
- 크림타입 : 쉽게 펴지고 유연하여 건성피부에 적합
- 스틱타입 : 커버력이 우수하여 붉은 반점이나 뾰루지 등을 커버하는데 사용하며 포토 및 영상, 무대 메이크업 시 사용하기 적합
- 펜슬타입 : 결점 부위가 작고 결점의 강도가 강하여 그 부분만을 커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3) 파운데이션(Foundation)

### 1) 기능

- 피부색 조절, 결점을 커버하며 부분화장을 돋보이게 함
- 얼굴의 윤곽을 수정하여 입체감 연출
- 자외선이나 공해, 바람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보호

### 2) 종류

- 리퀴드 파운데이션(Liquide Foundation : 수분>안료>유분)
  - 수분함량이 많아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에 적합
- 크림 파운데이션(Cream Foundation : 유분>안료>수분)
  - 적당한 유분과 커버력이 있어 중년층의 건성피부에 사용
- 스킨커버(Skin Cover : 유분>안료>수분)
  - 크림타입보다 커버력이 우수하여 무대화장, 신부화장 등 전문 화장에 적합
- 스틱 파운데이션(Stick Foundation : 안료>유분>수분)
  - 고체화된 제품으로 커버력이 강하며 지속력이 우수하여 전문가용으로 사용
- 파우더 파운데이션(Powder Foundation)
  - 파우더 분말을 압축시킨 매트한 타입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빠른 화장을 하기에 적합하다.
- 팬케이크(Pan Cake)
  - 방수효과가 매우 뛰어남. 베이스 메이크업의 효과를 차분히 마무리해 줄 때 사용

### 3) 파운데이션 색상 고르기

#### • 타입 선택

- 기본적으로 피부용도에 맞추어 선택
- 여러종류를 함께 사용할 때에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사용
- 피부의 건강을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따라 선택

#### • 색상선택

- 기본적으로 피부와 유사한색
- 목적에 따라 모델의 이미지에 맞추어서 선택

#### 4) 파운데이션 바르는 기법

- 선긋기(Lining) 기법 : 낮은 콧대 수정을 위해 쉐이딩 파운데이션으로 노우 색도를 위해 측면에 반듯한 선을 긋는 기법
- 패팅(Patting) 기법 : 두드리는 기법으로 피부의 결점부위 등 좁은 부위를 자연스럽게 베이스 색과 연결 시키는데 효과적
- 슬라이딩(Sliding) 기법 : 얼굴 전체에 고르게 문지르듯 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 블랜딩(Blending) 기법 : 쉐이딩 색 또는 하이라이트 색을 파운데이션 베이스 색과 경계가 되어 보이지 않게 혼합하듯이 연결시키는 방법

#### 5) 파운데이션의 기본 3가지 컬러

- 베이스 컬러(Base color)
  - 피부색과 유사색 또는 동색의 파운데이션을 선택
  - 사용되는 부위 : 얼굴 외곽을 뺀 전체에 발라준다.
- 색도우 컬러(Shadow color)
  - 베이스보다 1~2톤 어두운 색을 선택하여 주로 코 옆, 귀 아래 부분, 턱 등 좁게 보이고 싶거나 가늘게 혹은 웜폭하게 보이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하면 작으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얼굴을 표현 할 수 있다.
- 하이라이트 컬러(High light color)
  - 베이스보다 1~2톤 밝은 색을 선택하여 T존 부위, 눈 밑, 턱 밑, 눈썹 빼 등에 사용하며 돌출, 팽창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Tip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주의사항

- T존 부위에 많은 양을 바르면 칙칙하고 무거워 보이며, 얇게 바르는 것이 요령이다.
- 볼부분의 기미, 주근깨, 잡티가 많은 부위는 적당히 커버할 정도로 양을 조절하여 바른다.
- 헤어라인은 스폰지에 남은 여분으로 머리카락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펴 준 후 머리카락에 묻은 잔액을 화장수건이나 티슈로 닦아준다.

### (4)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 1) 기능

-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제거하여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높여줌
- 부분화장을 돋보이게 함
- 대기오염이나 자외선 등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 2) 종류

- 파우더 형(분말형) : 투명감이 있게 하고 피지나 땀 등을 흡수하여 피복성을 높인다.
- 콤팩트 형(콤팩트 파우더)
  - 커버력이 뛰어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다.

##### Tip 파우더 바르는 방법

- 퍼프로 바를 때의 요령

- 퍼프 1개를 이용하여 파우더를 묻힌 다음, 다른 퍼프를 덧대어 가볍게 비벼주어 파우더 양을 조절
- 피지량이 많은 이마나 턱부터 시작하여 얼굴 외각부터 차츰 중심부로 가볍게 두드리며 발라준다.
- 눈두덩, 눈 꼬리 아래 부분, 코 양옆 볼, 목과 턱의 경계까지 세심히 발라준다.
- 얼굴에 남은 여분의 파우더를 팬 브러쉬로 털어낸다.

• 브러쉬를 이용하여 바를 때의 요령

- 파우더 브러쉬를 용기 안에 넣어 파우더를 충분히 묻힌다.
- 얼굴의 넓은 부위부터 골고루 발라주며 부분적인 부위는 중간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심히 발라준다.
- 팬 브러쉬로 여분의 파우더를 털어주면 퍼프보다 더 자연스럽게 투명한 피부 톤으로 표현된다.

## 2. EYE MAKE-UP

### (1) 아이브로우(Eye Brow)

#### 1) 역할

- 얼굴형이나 눈매를 보완
- 얼굴의 인상결정
- 얼굴전체의 이미지 변화와 개성을 창출

#### 2) 제품의 종류

- 펜슬 타입(Pencil Type)
  - 눈썹이 뚜렷하지 않거나 숱이 적은 경우, 또는 짙은 화장시에 사용한다.
  -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 있다.
  -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
- 섀도 타입(Shadow Type)
  - 가장 자연스럽게 눈썹 표현
  - 눈썹 숱이 많은 사람에게 어울린다.
  - 캐익 타입으로 눈썹의 면을 메우고, 펜슬로 가늘고 정교하게 꼬리 쪽을 그려주면 효과적이다.

#### 3) 눈썹의 길이, 굵기, 색상에 따른 느낌

길이	긴 눈썹	정직, 성숙, 눈의 길이가 짧아 여성스러워 보임
	짧은 눈썹	동직, 폐활, 눈의 길이가 길어 보여 짧은 층에 어울림
굵기	가는 눈썹	여성적, 약함, 동양적, 고전적
	굵은 눈썹	남성적, 활동적, 개성미, 전강미
색상	짙은 눈썹	강렬한 느낌, 힘차고 강한 개성, 정열적
	엷은 눈썹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

#### 4) 눈썹 수정방법

- 수정가위 컷(Scissors cut) : 수정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눈썹을 잘라내는 방법
- 블렌드 컷(Blend Cut) : 브로우 브러쉬를 대고 빗질하여 빗 위로 빠져나온 눈썹과 아래로 빗질하여 아래로 빠져나온 눈썹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
- 트위저(Tweezer) : 족집개를 이용하여 눈썹을 뽑아내는 방법
- 쉐이빙(shaving) : 눈썹 전용 면도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털을 밀어주는 방법

#### 5) 아이브로우의 종류

- 표준눈썹 :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눈썹이며, 어느 얼굴형에나 잘 어울린다.
- 직선적인 눈썹 : 남성적인 느낌의 눈썹, 짧고 프레쉬해 보이며 장방형의 얼굴에 적당하고 역시 기본형 보다 조금 짧게 그린다.
- 올라간 눈썹(화살형) : 개성 있고 동적인 느낌이며, 둥근 얼굴이나 턱이 각진 얼굴에 어울린다. 지적인 느낌을 주며 눈이 조금 작아 보인다. 기본형보다 조금 짧게 그린다.
- 아치형 눈썹 : 여성적이며 요염하고 혹은 노숙한 느낌을 주며 이마가 넓은 사람, 턱이 각진 사람, 역삼 각형, 다이아몬드 형에 어울린다. 안정된 느낌을 주며, 눈이 커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눈썹 산을 올려 그린다.
- 각진 눈썹(갈매기형) :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눈썹, 샤프해 보이고 개성이며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둥근 얼굴, 삼각형 얼굴에 잘 어울린다.

### (2) 아이섀도(Eye Shadow)

#### 1) 목적

- 눈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 강조
- 눈의 표정연출
- 눈매의 수정역할

#### 2) 종류

- 케이크 타입(Cake type)
- 크림 타입(Cream type)
- 파우더 타입(Powder type)
- 펜슬 타입(Pencil type)

#### 3) 아이섀도 컬러의 명칭

- 베이스 컬러(Base Color) : 눈두덩 전체에 도포하는 컬러로 포인트를 돋보이게 한다.
- 메인 컬러(Main Color) : 눈 두덩이에 칠하는 색 중에서 가장 주요한 색으로서 베이스컬러보다는 진하고 포인트 컬러보다는 약한 색
- 포인트 컬러(Point Color) : 실제 눈을 강조하기 위한 색으로 쌍꺼풀 부위와 언더 섀도부분에 도포하며, 의상색과 시간, 장소, 목적에 맞추어 사용
- 하이라이트 컬러(Hi-Light-Color) : 보다 넓고 높게, 뚜렷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에 사용하며, 눈썹 뼈 부분이나 눈동자 중앙 위치에 사용

#### 4) 컬러 선택방법

- 의상 색과 동일계열 또는 조화로운 색 선택
- 계절감각에 의한 색 선택
- 색의 감정을 이용한 색 선택
- 눈의 형태를 고려하여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색상 선택

### (3) 아이라이너(Eye Liner)

#### 1) 사용목적

- 눈매를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연출
- 눈 모양의 수정효과
-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함(마스카라의 효과상승)

#### 2) 종류

- 펜슬 아이라이너(Pencil Eye Liner)
  - 초보자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이 용이하다(대중적)
  - 수정이 용이하나 정교한 라인 연출이 어렵고 지속력이 떨어지며 쉽게 지워지거나 번진다.
- 리퀴드 아이라이너(Liquid Eye Liner)
  - 번짐없이 섬세한 라인을 오래 지속시키고 내수성, 방수성이 강하다.
  - 일단 그리고 나면 수정이 어렵고, 강하게 표현되어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며 속눈썹 가까이 빙틈 없이 잘 그려야 한다.
- 케이크 아이라이너(Cake Eye Liner)
  - 물이나 스킨을 섞어 사용한다.
  - 리퀴드 타입보다 지속력 떨어지고, 펜슬 타입보다는 지속력이 좋아 널리 사용된다.
- 브러쉬 타입 아이라이너(Blush Eye Liner)
  - 리퀴드 타입보다 사용이 간편하며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펜슬타입에 비해 지속력이 좋다.
  - 휘발성이 강해 뚜껑을 바로 닫지 않으면 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

#### 3) 색상별 분류

- 검정(black) : 가장 대중적이며 한국 사람의 검은 눈동자에 가장 잘 어울린다.
- 브라운(brown) : 강한 인상이나 큰 눈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
- 회색(gray) :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
- 청색(blue) :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며 젊고 깨끗한 이미지로 여름 메이크업에 자주 사용

### (4) 마스카라(Mascara)

#### 1) 사용목적

- 속눈썹을 보다 길고 진하며 풍성하게 표현한다.
- 눈을 크게 보이며 눈매를 깊이 있게 연출한다.

#### 2) 마스카라의 형태별 분류

- 커링 마스카라(Curling Mascara)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원료를 사용하여 속눈썹이 잘 어울린다.

- 볼륨 마스카라(Volume Mascara) : 속눈썹이 풍부해 보인다.
- 롱래쉬 마스카라(Long-lash Mascara)
  - 섬유소가 들어 있어 속눈썹이 길어 보이며, 숲이 많아 보인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엉겨 붙거나 섬유소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 케이크 마스카라(Cake Mascara) : 고형타입 제품으로 물이나 스킨을 이용하여 사용, 내수성이 없다.
- 투명 마스카라
  - 젤리 타입으로 눈썹의 영양제 역할
  - 남성 메이크업시 눈썹을 벗어 결을 정리해 주거나 눈썹을 올려줄 때 사용한다.
  - 속눈썹에 묻은 새도우 가루를 제거하거나 인조속눈썹 사용시 이용한다.
- 워터 프루프 마스카라(Water Proof Mascara)
  - 건조가 빠르고 내수성이 좋아 여름철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 닦을 때는 아이 리무버(Eye Remover)로 닦아내야 한다.
- 리퀴드 마스카라(Liquid Mascara)
  - 지속력과 접착성이 뛰어나며 속눈썹을 선명하게 해주는 액상타입

## (5) 인조속눈썹(False Eye Lashes)

### 1) 역할

- 눈매를 더욱 또렷하고 크게 보이게 하며 그윽한 눈매연출
- 특수한 경우 다양한 종류의 형태나 색상의 속눈썹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
- 속눈썹이 짧고 숲이 적은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

### 2) 종류별 분류

- 심는 속눈썹(Individual Lashes)
  - 한 개, 한 개 핀셋으로 붙이며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 한 개로 연결된 속눈썹(Stip Eye Lashes)
  - 전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며 사용하기 간편하다.

## 3. LIP MAKE-UP

### (1) 목적

- 입술모양을 수정보완
- 색상을 이용하여 음영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줌
- 라놀린, 밀랍 등 유지를 함유하고 영양공급 및 입술보호

### (2) 제품의 종류

- 립스틱(Lip Stick)
  - 가장 대중화 된 제품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색감이 우수
- 립 라이너 펜슬(Lip Liner Pencil)
  - 펜슬 형태로 입술의 윤곽표현이나 형태 수정 시에 사용

- 립글로스(Lip Gloss)
  - 입술을 보호하고 입술에 윤기를 준다.
  -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립스틱의 색을 맑게 표현
- 립크림(Lip Cream)
  - 글로스와 같은 형태로 하이라이트와 보호용으로 사용되지만 입술보호 목적이 더 강하다.
- 립 브러쉬 펜슬(Lip Blush Pencil)
  - 샤프처럼 누르면 점액이 나오는 형태의 제품
  - 사용감이 부드럽고 휴대, 사용이 간편하지만 번지기 쉽고 지속력이 떨어진다.

### (3) 색상이 주는 이미지

색상	이미지	적용
빨강	강렬, 정열, 대담, 세련된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li> <li>· 파티나 나이트 메이크업시 사용</li> </ul>
핑크	소녀적, 청순함, 상냥, 부드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젊은 층이 사용</li> <li>· 내츄럴이나 신부, 약혼 메이크업시</li> </ul>
오렌지	건강, 발랄, 젊음, 생동감, 스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은 피부나 흰 피부에 잘 어울림</li> <li>· 여름, 스포츠 메이크업시 적당</li> </ul>
브라운	차분, 성숙, 지적, 세련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적이며 가을 메이크업시 적당</li> <li>· 오클계 피부에 잘 어울림</li> </ul>
보라	세련, 우아, 서비스러움	· 모던하며 환상적인 메이크업시 사용

### (4) 색상 선택법

#### 1) 피부색에 따른 선택법

피부색	구분	적용
핑크 톤	핑크	조금 혈색이 도는 흰 피부로 립 컬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푸른 기가 도는 와인, 퍼플 계열의 색)
	화이트	어느 색이나 무난하지만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분위기를 가미한 색상이 좋다.(핑크, 퍼플, 레드)
베이지 톤	베이지	노란 기운이 많이 도는 피부로 브라운, 레드, 오렌지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림.
	오우커	짙은 갈색 피부로 브라운, 레드, 오렌지+골드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림.

#### 2) 연령에 따른 색상 선택법

연령	적용
중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펠이 많이 든 것보다는 매트한 느낌의 제품이 좋다.</li> <li>• 차분하고 은화한 중간색이 적당, 난색계열의 선명한 색상도 효과적</li> <li>• 고상한 이미지 연출에 중점 - 레드가 가미된 핑크 톤, 브라운, 붉은 자주색</li> </ul>
젊은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립 메이크업보다 아이메이크업을 강조</li> <li>• 연하고 밝은 계열의 핑크, 오렌지 사용, 선명한 레드 계열도 잘 어울림</li> <li>• 립글로스나 펠이 가미된 색상이 잘 어울림</li> </ul>

## (5) 입술의 기본 형태

- 인커브(In Curve)
  - 귀엽고 여성스러워 보임, 일본의 기모노나 한복 메이크업에 많이 사용
- 아웃커브(Out Curve)
  - 입술을 늘려 그리는 테크닉으로 성숙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
- 스트레이트 커브(Straight Curve)
  - 립 라인을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테크닉으로 강하고 딱딱해 보이며 활동적이고 이지적인 느낌

### ☞ Tip 립메이크업의 유의점

- 윤곽은 예쁘고, 구각은 깔끔하게 그려준다.
- 색상은 균일하고 매끈하게 바르고, 좌우가 똑같이 되도록 주의한다.

# 4. CHEEK MAKE-UP

## (1) 목적

- 얼굴형을 수정하여 여성미를 돋보이게 함
- 얼굴에 혈색을 부여하여 건강미 증진
- 밋밋한 윤곽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있는 얼굴 표현과 개성연출

## (2) 형태별 분류

- 케이크 타입(Cake Type)
  - 파우더를 압축한 형태로 색감표현이 용이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
  - 혈색을 나타내거나 윤곽 수정용으로 사용
- 크림 타입(Cream Type)
  -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 바르기 전에 사용
  - 그라데이션이 용이하며 윤곽수정에 많이 사용
  - 색상이 다양하지 못함

## (3) 색상 선택

- 아이섀도우, 립 메이크업에 맞춘다.
- 시간, 장소, 목적을 고려한다.
- 조명을 고려한다.
- 피부색에 맞춘다.

## (4) 블러셔 위치에 따른 느낌

- 여성스러운 이미지 : 볼 뼈를 중심으로 눈 주위와 관자놀이 쪽으로 얇게 펴 바른다.
-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 : 볼 뼈 위는 밝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볼 뼈 아래는 어두운색으로 그라데이션한다.
-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 볼 뼈 약간 아래 부분을 주황색과 갈색 계열로 다소 짙게 발라준다.
- 귀여운 이미지 : 뺨부터 눈 밑 가까이까지 둥근 느낌으로 펴준다.

## (5)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 위치

- 등근 얼굴 : 입 꼬리를 향해
- 사각형 : 턱 끝을 향해
- 역 삼각형 : 코 끝을 향해
- 긴 얼굴형 : 눈 앞머리를 향해

# 5. 얼굴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 (1)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 위치

### 1) 긴 얼굴형(Oblong face)

얼굴의 가로 폭은 좁고 세로의 길이는 긴 형으로 마른 얼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조용하고 성숙한 느낌, 우아하면서 인자한 느낌이 장점인 동시에 우울한 느낌을 주고, 나이가 들어보이는 단점이 있다.

장점을 살려서 성숙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거나, 긴 얼굴형을 수정하여 젊음과 활력을 느끼는 이미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2) 등근 얼굴형(Round face)

볼과 턱 선이 둑글고 이마와 헤어라인의 경계선도 등근, 귀여운 이미지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얼굴형이다. 넓이와 길이가 거의 비슷해 짧은 얼굴형태를 갖고 있으며, 얼굴이 크고 윤곽이 없어 둔해 보이기도 한다. 귀여운 이미지가 강조되는 곡선형을 강조해서 메이크업하면 어려 보이고 귀엽게 연출 할 수 있다.

### 3) 사각 얼굴형(Square face)

이마와 헤어라인의 경계선이 직선이고 이마선과 턱 선에 각이 쳐 있으며 볼의 선도 직선에 가깝다. 얼굴의 길이에 비해 폭이 넓으므로 평면적인 느낌과 안정감이 있고 활동적이며 의지가 강해 보여서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가 결여되기 쉬운 형이다.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을 살려 메이크업하면 활동적인 이미지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얼굴형이다.

### 4) 역삼각형 얼굴형(Uninverted face)

이마는 넓으나 턱이 뾰족한 형으로 이지적이며 세련미가 느껴지는 현대적인 얼굴형이다.

이마 양끝에 살짝 쉐딩을 주어 볼이 가름해 보이는 이미지를 장점으로 살려 메이크업을 하면 현대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 5) 삼각형 얼굴형(Triangular face)

이마는 좁으나 턱 선이 넓은 형으로 양 볼에 살이 많거나 턱뼈가 나온 형이다.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고 풍만한 이미지를 주나 자칫 고집스럽고 심술궂어 보일 수 있다.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후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에게 많은 얼굴형이다.

## (2) 얼굴의 균형도

얼굴 각 부분들 간의 이상적인 비율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얼굴의 균형도(페이스 프로포션)라 한다. 얼굴의 균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모델의 장점을 살려 아름답고 균형 잡힌 얼굴을 만들거나, 결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개성 있는 얼굴로 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1) **가로의 분할(얼굴 폭)** – 얼굴정면을 가로로 분할하면 3등분으로 나뉜다.

- 1등분 :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
- 2등분 : 눈썹부터 코끝까지
- 3등분 : 코끝에서 턱까지

2) **세로의 5등분** – 얼굴 정면을 세로로 분할하면 5등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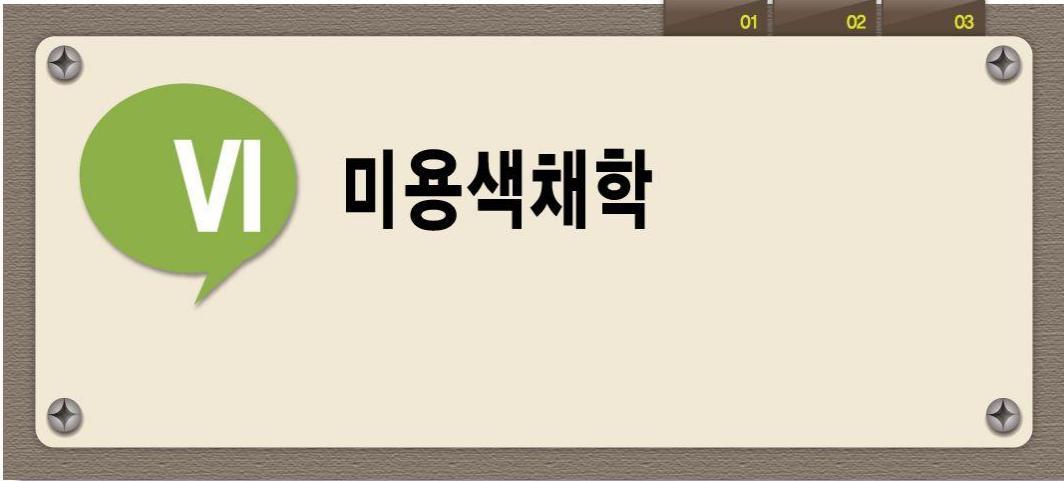
- 1등분 : 헤어라인에서 눈꼬리까지
- 2등분 : 눈꼬리에서 눈앞머리까지
- 3등분 : 눈앞머리에서 반대 눈앞머리까지
- 4등분 : 눈머리에서 눈꼬리까지
- 5등분 : 눈꼬리에서 헤어라인까지

3) **눈머리** – 콧볼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에 위치

4) **눈썹 길이** –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에 위치하고 눈썹꼬리는 코볼에서 눈꼬리를 연결한 사선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

5) **눈과 눈 사이** – 눈의 길이와 같다.

6) **입술** – 정면을 바라보고 눈동자 안쪽선의 연장 수직선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1 : 1.5이다.



## 1. 색채의 기초

### 1) 빛과 색의 관계

빛은 전자파로서 파동적인 면과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다. 이는 X선, 초음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초단파, 극초단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장이 대략 380nm에서 780nm 사이인 가시광선이며 가시광선보다 광장이 짧은 빛을 자외선, 긴 빛을 적외선이라고 한다.

### 2) 물체의 색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가시광선의 광장이 분해되어 반사, 흡수, 투과의 현상이 일어나 다양한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빛이 물체에 닿아 모두 반사하면 흰색을 띠며 반대로 거의 모든 빛을 흡수하면 검정색을 띤다. 붉은 천은 다른 빛은 흡수하고 붉은색을 반사해서 붉은색으로 보이고 나뭇잎은 녹색의 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인다.

- 표면색 :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는 색
- 경영색 : 거울처럼 광활한 표면에 비추는 색
- 공간색 : 유리병 속의 액체나 얼음 덩어리처럼 3차원 공간의 색
- 간접색 : 빛의 간접에 의해 나타나는 색
- 형광색 : 형광물질의 색

### 3) 눈의 구조와 작용

망막에 상을 맺으면 망막에 있는 두 종류의 시세포에서 빛 에너지를 수용해 물체의 색을 분별한다

- 간상체 : 밤에 어두운 곳에서 작용하며 명암을 판단함
- 추상체 : 낮에 밝은 곳에서 작용하며 색을 판단함

### 4) 빛에 대한 반응

- 색의 항상성 : 비슷한 색이 처음에는 다른 색으로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같은색으로 보여지는 현상

## 5) 색채의 역사

- 서양의 색채사

- 원시시대의 인류가 색채를 사용했던 흔적은 약 20만년 전으로 추정.
- 기원전 2만년 전에 구석기의 동궁벽화, 프랑스의 라스코, 스페인의 알타미라
- 남아프리카의 부쉬만 등의 벽화에서 적갈색, 황토색, 흑백색의 색조로 묘사된다.

- 고대의 색

- 이집트 : 금색, 적색, 녹색, 황색, 청색, 백색, 흑색, 갈색의 8가지 기본색을 사용
- 그리스 : 청색, 적색, 금색,

- 르네상스의 색

- 원근법과 명암법에 따른 이론 확립
- 레오나르도 다빈치-보색 조화설

- 근대의 색

- 인간이 색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어 물리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색채학이 등장

- 뉴턴 : 스펙트럼 발견

- 19세기 이후의 색

- 헤링 : 반대색설
- 세브러엘 : 색채조화론
- 먼셀 : 먼셀 표색계
- 오스트발트 : 오스트발트 표색계
- 1964년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과 하버드대학 연구진 : 인간의 눈에 적색, 녹색, 청색의 3색 감광세포가 있음을 증명
- 영-헬름홀츠[Helmholtz, Hermann von] : 3원색설

## 6) 원색 및 색의 혼합

- 원색 : 원색이란 다른 색의 복합으로 만들 수 없는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색

- 원색의 조건

- 그 색을 다른 색으로 더 이상 분류 할 수 없다.
- 다른 색광의 혼합에 의해 만들 수 없다.
- 이들 색을 모두 혼합하면 백색(색광의 경우) 또는 흑색(색료의 경우)이 된다.

- 3원색 설

- 색료의 3원색 : Red, Yellow, Blue
- 색광의 3원색 :Red, Green, Blue

- 색의 혼합

- 가색 혼합(색광의 혼합)
  - Blue + Green = Cyan
  - Green + Red = Yellow
  - Blue + Red = Magenta
  - Blue + Green+ Red = White

- 감색 혼합 ( 색료의 혼합 )
  - Magenta + Yellow = Red
  - Yellow + Cyan = Green
  - Cyan + Magenta = Blue
  - Magenta + Yellow + Cyan = Black

## 7) 색의 대비

어떤 색이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 실제와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

- 계시대비 : 시간적으로 전후해서 나타나는 시각현상

■ Tip 잔상 : 눈에 비쳤던 자극이 없어진 후에도 색의 감각이 남아 여운을 남기며 생리적인 작용으로 보색이 가해져서 보이는 현상

- 동시대비 : 나란히 놓여 있는 두색이 서로 상대방의 잔상에 영향을 주어 색채가 변해 보이는 현상
- 색상대비 : 배경색의 보색이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대비 현상
- 명도대비 : 같은 명도의 색을 저명도 위에 놓으면 명도가 높게, 고명도 위에 놓으면 명도가 낮게 보임
- 채도대비 : 같은 채도를 저채도 위에 놓으면 채도가 더 높아 보이고 고채도 위에 놓으면 채도가 더 낮아 보임
- 보색대비 : 서로 보색관계의 두색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각의 채도가 더 높아져 보이는 현상
- 면적대비 : 실제의 면적보다 큰 면적이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고 면적이 작아지면 실제보다 명도와 채도가 낮아 보이는 현상
- 연변대비 : 두 색이 가까이 있을 때 경계면의 언저리가 먼 부분보다 더 강한 색채 대비가 일어나는 현상
- 한난대비 : 색의 차고 따뜻한 느낌의 지각 차이로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함

## 8) 색의 동화 현상

대비와는 반대되는 효과로 문양이나 선의 색이 배경색에 혼합되어 보이는 것으로 서로 동화되어 원래의 색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

- 명도의 동화 :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 주로 명도가 변화해 보임
- 색상의 동화 :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 주로 색상이 변화해 보임
- 채도의 동화 :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 채도가 변화해 보임

## 9) 색채의 감정효과와 이미지

- 색의 시각적 특성

- 색의 진출과 후퇴 :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같은 모양과 크기라도 난색계는 진출해 보이고 한색계는 후퇴해 보인다.
- 색의 명시도 : 색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 명도, 색상, 채도차가 클 때 명시도가 높음
- 색의 주목성 : 색의 진출, 후퇴, 팽창, 수축과 관계하는 것으로 무채색보다 유채색이 한색계보다 난색계가 저채도 보다 고채도가 주목성이 높다.

- 색채와 감정

- 색의 온도감 : 색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난색은 따뜻하게 한색은 차갑게 느껴진다.
- 색채의 흥분과 진정 : 색채는 신경계를 긴장시키거나 진정시키는데 난색계는 흥분, 한색계는 긴장의 반응을 보인다.
- 색채의 중량감 : 중량감은 명도와 관련이 있으며 저명도는 무거운 색, 고명도는 가벼운 색이다

- 색채의 강약감 : 강약감은 채도와 관계있으며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 색채의 경연감 : 명도에 의한 무게감과 채도에 의한 강약감이 함께 작용하며 경연감은 색상보다 톤에 따라 작용
- 색채의 시간성 : 장파장계열(붉은색)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단파장계열(푸른색)은 시간이 짧게 느껴짐

## 2. 색이름과 분류

### 1) 관용색명(고유색명)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물의 색이름으로 어느 특정한 색을 지역마다 여러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며 혼동하기 쉬움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색명  
: 순수한 우리말로 하양, 검정, 빨강, 노랑, 보라 등
- 동물, 식물, 광물, 자연현상, 지명, 인명 등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
  - 동물에서 따온 것 : 살색, 쥐색, 피콕그린 등
  - 식물에서 따온 것 : 귤색, 풀색, 밤색 등
  - 광물에서 따온 것 : 고동색, 금색, 은색, 호박색 등
  - 원료에서 따온 것 : zinc white, cobalt blue
  - 인명, 지명에서 따온 것 : prussian blue, bordeaux
  - 자연에서 따온 것 : 하늘색, 물색, 황토색 등

### 2) 계통색명(일반색명)

- 색채를 색의 3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적절한 언어로 체계적으로 표현한 호칭.
- 색명의 관계와 위치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편리하다.

### 3) ISCC-NBS 일반색명

- 전미 색채 협회와 미국 표준국이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것으로 계통색명법으로 색이름을 호칭

### 4) 한국 산업규격의 색명

- 계통색명과 관용색명으로 구분. 미국의 ISCC-NBS 색명법을 기준으로 한다.

### 5) PCCS

- 멘셀과 오스트랄트의 표색계의 특징을 포함. 명도와 채도를 톤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색상과 톤으로 체계화한 것

### 3. 색의 체계와 색의 3속성

#### (1) 색의 체계

1) **현색계** : 물체색을 색지각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번호나 기호를 붙여 물체의 색채를 표시하는 체계. 대표적으로 면셀과 NCS표색계이다.

2) **흔색계** : 물체를 측색계로 측색하고 어느 파장 영역의 빛을 반사하는가에 따라서 색의 특징을 수치로 판별하는 것으로 국제 조명위원회(CIE)에서 고안한 표색계와 오스트랄트표색계가 여기에 속한다.

##### Tip 면셀의 표색계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 연구가인 면셀에 의해 창안, 미국 광학협회의 수정에 의해 수정 면셀표색계가 표준 색표로 시판. 합리적인 표시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색계

##### Tip 면셀의 색입체

중심의 세로축에 명도, 주위의 원주상에 색상, 중심에서 방사선으로 채도를 구성

- 색상(H): 가운데의 무채색을 중심으로 원둘레에 색상을 배치
- 명도(V):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아짐
- 채도(C):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짐

##### Tip 면셀기호의 표기법

어떤 색을 면셀 기호로 표기 할 때에는 HV/C순서로 기록한다.

5Y 8/10 -> '5Y8의 10'이라 읽으며 색상이 5Y, 명도가 8, 채도가 10인 색이다.

#### (2) 색의 3속성

모든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는 데에는 명칭이 있어야하고 또한 구별되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이를 구별하는데 필요한 성질인 색상, 명도, 채도를 '색의 3요소' 또는 '3속성'이라 한다.

- 색상(Hue) : 일반적으로 색이 가지는 성질을 말하며 색을 구분하기 위한 색의 명칭
- 명도(Value) : 색의 밝고 어두움
- 채도(Chrome) : 색의 맑고 탁함

#### (3) 톤(Tone)

톤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으로 하나의 색상에서 명, 암, 강, 약, 농, 담, 심, 천 등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톤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톤으로 구성된 색공간이 PCCS의 특징이다. 각 색상마다 12종류의 톤으로 나누어지고 무채색은 5종류의 톤으로 분류된다.

## 4. 색채와 감정

### (1) 색채의 정서적인 반응

#### 1) 색채의 연상

어떤 색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색채에 관하여 특정인상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형을 색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색채를 보고 그와 관계있는 사물, 분위기, 이미지 등을 생각해 내는 것을 색채 연상이라 한다.

- 색채의 구체적인 연상 : 빨강 : 피, 불, 태양 / 주황 : 끈, 감, 당근
- 색채의 추상적인 연상 : 빨강 : 정열, 흥분, 활력 / 주황 : 애정, 식욕, 유쾌

#### 2) 색채의 상징

색채의 상징성은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서 즉 일종의 사회적 약속의 언어로서 기능을 가진다. 신분이나 계급의 구분, 방위의 표시, 지역의 구분, 학문의 구분, 서적, 약품, 기구 또는 건물의 식별, 주의 표시, 국가나 기업, 단체의 상징

- 색채와 방위  
    빨강 : 남쪽 / 노랑 : 중앙 / 파랑 : 동쪽 / 흰색 : 서쪽 / 검정 : 북쪽

### (2) 색채와 문화

#### 1) 기후에 따른 색채 선호

- 온도
  - 건조하고 부드러운 지방(이집트, 아시리아)  
    강렬한 순색, 강한 대비 : 황색, 적색, 청색, 녹색
  - 온화한 지방(한국, 일본, 유럽일대, 미국)  
    약한 대비, 온화한 중간색 : 회색, 베이지색, 갈색
  - 한냉지방(소련, 북유럽, 알래스카)  
    확실한 색의 강한 대비 : 백색, 흑색, 적색, 황색

- 습도
  - 습윤 지방(남미, 일본)  
    약간 낮은 명도와 둔한 중간색 : 흑색, 황색, 올리브색
  - 건조한 지방(중앙아시아, 페르시아)  
    고명도의 강한 대비 : 황색, 적색, 백색, 청색

- 풍토
  - 수립지(캐나다, 스칸디나비아) → 어두운 중간색 : 흑색, 녹색, 청색, 자주색
  - 초원지(코카서스 지방) → 약간 맑은 중간색 : 황색, 녹색, 백색
  - 모래지역(아라비아, 몽고, 이집트) → 밝고 따뜻한 색 : 황색, 적색, 등색

#### 2) 문화에 따른 색채 선호

- 문화 융성기 : 강한 채도와 확실한 배색 → 이집트, 앗시리아
- 문화 성숙기 : 강한 채도와 둔한 대비 → 고딕, 로코코

### 3) 민족에 따른 색채 선호

- 서양
  - 북방 : 어두운 배색. 흑색, 갈색, 적색, 황색 → 게르만, 슬라브족
  - 남방 : 명쾌한 배색. 하늘색, 핑크, 베이지색 → 라틴족
- 동양
  - 북방 : 강하고 선명한 배색. 황색, 적색, 녹색 → 몽고
  - 남방 : 둔하고 침착한 배색. 흑색, 갈색 → 인도네시아

### 4)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

- 신생아 : 밝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에 흥미를 가진다.
- 어린이 : 난색계의 빨간색이나 원색, 밝고 화려한색을 좋아한다.
- 성장기 : 대체로 여성은 난색계(빨강, 오렌지, 보라색) 선호/남성은 한색계(파랑색이나 녹색) 선호
- 장년기 : 중간 채도의 적당한 대비. 베이지, 올리브색
- 노년기 : 약한 채도의 적은 대비. 회색, 갈색

### 5) 직업에 따른 색채 선호

- 두뇌직 : 중간 명도와 채도가 약한 대비. 청회색, 녹회색, 아이보리
- 기예직 : 명도가 높고 채도가 중간인 일반적으로 큰 대비. 핑크, 베이지, 하늘색, 옅은 보라, 홍색
- 노동직 : 명도가 낮고 약한 채도의 대비. 갈색
- 사교직 : 명도가 높고 강한 채도의 중간 대비. 백색, 금색, 은색, 적색, 자색, 흑색

### 6) 지역에 따른 색채 선호

- 도시 : 명도가 높고 채도가 중간으로 명쾌한 대비. 베이지, 하늘색, 핑크색
- 농촌 : 명도가 낮고 채도가 약하거나 강하고 대비가 애매함. 갈색, 흑색

## 5. 배색

### (1) 배색의 기본

- 동일색상 또는 인접색상 배색 : 부드럽고 통일된 온화한 느낌
- 유사색상 배색 : 색상차가 유사한 배색으로 부조화의 영역으로 명도·채도차를 높이면 조화된 느낌
- 근접 보색색상 배색 : 서로 대비되는 색상차가 큰 배색의 방법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
- 보색색상 배색 : 보색색상의 강한 대비가 나는 배색으로 강한 자극을 주며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

### (2) 배색기법

#### • 분리효과(Separation) 배색

: 배색을 이루는 색과 색 사이에 분리색을 넣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분리색은 무채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방법은 환경, 패션, 메이크업 색채설계에 많이 쓰인다.

#### • 강조(Accent) 배색

: 배색이 너무 단조로울 경우 강조색을 사용함으로서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배색으로 기준 색과 대조되는 색상이나 톤의 색 사용

- 그라데이션 (Gradation) 배색

: 색상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색상, 명도 톤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톤 온 톤(Tone on tone) 배색 : 동일 색상에서 톤의 차를 강조하는 배색

- 톤 인 톤(Tone in tone) 배색 : 유사한 톤으로 이루어진 배색

## 6. 색채의 표현

### (1) 사계절 색채표현 이론

사계절의 느낌과 감정을 색채로 표현하여 이를 색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절을 대표하는 색을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계절의 색을 메이크업이나 의상·헤어색상 선택에 접목하여, 자신의 피부가 속해있는 계절을 진단하여 얼굴에 맞는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선택한다.

#### 1) 봄 이미지 표현

봄의 색상은 명도, 채도가 높고 깔끔한 청순한 색이 많다. 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는 노란빛이 돌며 복숭아색, 아이보리 등의 밝고 가볍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 대표적이다. 또한 피부톤이나 본인의 타입이 봄 이미지에 적합한 사람은 머리카락과 눈빛이 갈색을 띠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지님. 얼굴은 희고 투명한 사람이 많고 뺨에 복사빛의 홍조를 띤다. 또한 피부색이 매끄러운 아이보리의 피부나 갈색기를 띠는 투명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많다. 봄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너무 강하거나 짙게하는 것 보다 가벼운 느낌이 나도록 한다.

#### 2) 여름 이미지 표현

여름의 색상은 부드러우면서 시원하고 옅은 느낌을 주며 모든 색에 흰색과 파랑의 톤이 들어있다. 겨울 색보다 한결 부드러우며 대부분 청색 톤이 주류를 이룬다. 여름타입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눈빛을 지녔으며 눈빛이나 머리카락이 노란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느낌 보다는 붉은기에 가까운 차가운 느낌을 준다. 피부는 붉은 기운이 눈에 띄게 느껴지는 사람과 창백한 사람이 있다. 여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채도가 낮은 색상이 잘 어울린다.

#### 3) 가을 이미지 표현

가을은 주변 환경이나 심리적으로 여름에 비해 차분하게 가라앉고 여유로움을 찾게 되므로 차분한 톤의 중간색으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색에 노랑과 검정이 섞인 색이 어울리며 흑색, 회색, 백색은 피하며 명도와 채도가 낮은색이 잘 어울린다. 가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부드럽고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피부색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으로 갈색의 눈동자와 갈색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 4) 겨울이미지 표현

겨울색은 생생하고 깔끔한 원색 또는 차고 시원한 색조들이며 흰색, 검정 등의 무채색이 겨울 이미지를 더 옥 부각시킨다. 겨울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를 가졌으며 붉은기가 조금 비치는 투명한 피부나 누른기를 띤 피부를 가졌다. 이러한 겨울 사람은 다양한 색상보다 절제되고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포인트 색상을 최대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7. 색채조화

### (1) 색채조화의 기본 원리

- 질서의 원리 : 색채 조화는 의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있는 계획에 의해 선택된 색채에 의해 생긴다.
- 동류의 원리 : 가장 근접해있는 색채의 배색은 보는 안정감과 친근감을 주며 조화를 느끼게 한다.
- 유사의 원리 : 배색된 색채들이 서로 공통된 상태와 속성을 가질 때 그 색채군은 조화를 이룬다.
- 비 모호성의 원리 : 색채조화는 두색이상의 배색에 있어서 석연치 않는 점이 없는 명료한 배색에서만 이루어진다.
- 대비의 원리 : 배색된 색채들의 상태와 속성이 서로 반대되면서 모호한 점이 없을 때 조화된다.

### (2) 색채조화를 위한 기본배색

- 2색 조화 : 색상환 중심에 지름을 두고 마주 바라보는 두가지 색의 조화
- 3색 조화 : 색상환에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3가지 색상을 골라내면 3색의 조화를 형성한다.
- 4색 조화 : 색상환에서 서로가 직각을 이루며 지름을 통해 연결되는 2가지 보색을 찾아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4색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6색 조화 : 3개의 보색대가 조화된 6색으로 조화하거나 검정과 흰색을 4개의 순색과 조화한다.

### (3) 색채 조화의 유의점

- 색채조화는 인간의 기호의 문제로 각자의 정서, 감정 등이 다르게 작용하며 같은 사람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오래된 배색보다는 새롭고 자주 접하는 배색을 좋아하게 된다. 색채 조화는 디자인이나 색 자체와 함께 그 절대적인 시각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 색채조화는 채색된 범위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 색채조화는 색 자체와 함께 디자인의 요소, 형태에 따라서 좌우된다.
- 색채조화는 색 자체와 함께 디자인의 의미나 해석에 따라 좌우된다.
- 색채조화에 객관적 법칙성, 규칙성을 부여하기 매우 어렵다.



##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이란 “사람의 신체를 청결히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증가시키고, 용모를 변화시키고, 또는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도포, 산포,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 2. 피부의 구조와 기능

### (1) 피부구조

- 피부는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으로 여러가지 자극이나 장해 혹은 건조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인의 전신 면적은 약  $1.6\text{m}^2$ 이다.
- 일반적으로 눈꺼풀이 가장 얇고 손바닥, 발바닥이 가장 두껍다.
- 피부는 위로부터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3개층으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 털, 손톱, 피부선(한선, 피지선) 등 부속기관이 존재
- 표피층은
  - 각질층(비듬, 때가되어 탈락)
  - 투명층(생명력 없는 투명한 세포층,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 분포)
  - 과립층(방어막 역할 → 피부염 방지, 피부건조 방지)
  - 유극층(표피의 대부분 차지, 세포와 세포사이 임파액 흘러 영양공급)
  - 기저층(각질형성세포, 색소형성세포 생성)

## (2) 피부의 기능

- 보호작용(세균, 광선,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보호)
- 감각작용(피부에 뭔가 닿았을 때, 따뜻하다, 차갑다 등을 느끼게 하는 작용)
- 체온조절작용(외부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을 외부로 발산,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하여 체온의 발산을 막음)
- 분비작용(피지가 피부표면에 분비, 피지막 형성)
- 표현작용(인간이 느끼는 흐느낌에 감정이 민감하게 피부에 반영되어 나타남)
- 흡수작용(피부에 여러 물질들이 인체내로 흡수된다.)

## 3. 화장품의 원료

과학의 발전에 의해 천연물, 합성물, 바이오 생산물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원료의 구입이 가능하게 되고 품질의 향상이나 제품의 다양화에 기여하여왔다.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료는 유지, 왁스류, 에스테르유 등의 유성원료, 유화, 가용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보습제, 점도증가제, 피막형성을 목적으로 또는 그 자체 분말로서 사용되는 고분자화합물, 자외선흡수제, 산화방지제, 금속이온봉쇄제, 염료, 안료 등의 색제류 등 외에 비타민류, 신물추출물 등 의 약제 그리고 향료를 들 수 있다.

### (1) 유지 (Oils and Fats)

유지는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트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며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한다.

유지 중에 상온에서 액상인 것을 지방유, 고체인 것을 지방이라 한다.

#### 1) 올리브유 (Olive oil)

올리브의 열매를 압착하여 얻은 지방유로 피부표면으로부터 수분증발을 억제  
감촉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2) 동백유 (Camellia oil)

동백나무 종자에서 얻은 지방유로 올레인산(82~88%)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그 외 팔미틴산 등의 포화지방산(8~10%)과 리놀산(1~4%) 등으로 되어있으며, 크림이나 유액 등에 사용되며 옛날부터 두발용 기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 3) 마카다미아 너트유 (Macadamia nut oil)

퀸즐랜드넛 나무과의 종자를 압착하여 얻은 지방유 올레인산이 주성분이고,  
크림, 유액, 입술연지 등에 사용된다.

#### 4) 피마자유 (Castor oil)

피마자(아주까리)의 종자에서 얻은 지방유로 히드록시산인 리시놀산이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진수성이 높다.  
입술연지, 포마드 등에 사용

## (2) 왁스류(Wax esters)

왁스류는 화학구조상 고급지방산과 고급알코올이 에스테르이며 동·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초화장품이나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입술연지 등을 고형화하거나 광택을 부여하고 사용감촉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 1) 칸델릴라 왁스(Candelilla Wax)

온도차가 심하고 비가 적은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생육하고 있는 칸데릴라 식물 등의 줄기로부터 얻은 왁스를 정제한 것으로 입술연지 등의 스틱상의 제품에 광택이나 내온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2) 호호바유 (Jojoba oil)

멕시코 북부 건조지대에서 자생하는 호호바 종자에서 얻은 액체 왁스로 그 주성분은 불포화 고급알코올과 불포화지방산의 에스테르이며 산화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고 사용감촉이 양호하며, 피부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크림, 유액, 입술연지 등에 사용된다.

### 3) 밀납 (Bees Wax)

꿀벌집에서 얻은 왁스를 정제한 것으로 크림이나 입술연지, 볼연지 등의 스틱상의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 4) 라놀린 (Lanolin)

양의 털로부터 얻은 지방모양의 물질을 정제한 것이며 피부의 친화성, 부착성이 풍부하고 또 물성적으로 물을 함유하는 성질이 우수하여 크림, 입술연지 등에 사용된다.

## (3)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s)

한분자내에 친수성과 친유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액체-기체, 액체-고체 계면에 흡착하여 그들 계면의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성질을 계면활성이라 하고,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 1) 음이온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s)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하며 고급지방산비누, 알킬황산에스테르염, 폴리옥시에틸렌알킬메테르황산염, 아실N-메틸타우린염 등이 있다.

### 2) 양이온 계면활성제(Cationic surfactants)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하는 것이고 특히 모발에 흡착하여 유연효과나 대전방지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헤어린스, 샴푸에 이용된다.

## (4) 보습제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데는 수분이 깊게 관련하고, 피부탈수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습제는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솔비톨, 젖산나트륨, 히아론산나트륨 등이 있다.

## (5) 미백용 약제(Whitening agents)

피부의 멜라닌 생성 및 대사메커니즘으로부터 미백용 약제의 작용기전으로서 멜라노사이트 내에서의 멜라닌 생성억제, 이미 생성된 멜라닌의 환원, 표피네 멜라닌의 배설촉진, 멜라노사이트에 대한 선택적 독성이 고려된다.

### 1) 알부틴(Arbutin)

식용버섯 유래 및 B16 Mouse melanoma 유래의 티로시나제 억제

### 2) 코지산(Kojic acid)

penicillium 속 등 사상균의 발효액 중에서 생산되며 된장, 간장, 술 등 색이나 맛 등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 3) 비타민C류

‘아스콜빈산’이라고도 하며 약용화장품의 가장 대표적인 멜라닌생성 억제제이고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다.  
(안전성이 높으나 안정성이 나쁨)

### 4) 감초 추출물

색소제거 효과와 자외선 A·B를 흡수하는 능력

티로시나아제 억제제로 작용하여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

## (6) 기타

1) 하이드록시산(AHA) : 과일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종합과일산’이라고도 하며 각질제거 및 유연성을 가진 활성물질로 피부노화개선에 최고의 성분. 종류로는 글리콜산(사탕수수에서 얻어짐. 각질제거), 젖산(쉰 우유에서 발견되며 신맛. 천연보습인자), 능금산(사과산), 주성산(신포도에 함유 포도산)이라고도 함)

2) 위치하젤 : 천연알코올 70%함유 아스트린젠틱 효과, 염증방지, 천연수렴

3) 스쿠알렌 : 인체피지 25%구성, 피부지질과 친화성이 우수한 불포화지방산, 살균력이 뛰어남(상어에서 추출한 간유로 무색·무취)

4) 콜라겐 : 우수한 수화능력, 피부탄력과 조직력을 도와주는 수분 점약적 성분 중요한 구조 단백질이며 모이스춰라이저 기능, 노화효과적, 수분보유

5) 아줄렌 : 민감한 피부에 우수한 효과, 항염증, 진정제(카모마일유도체)

6) 알란토인 : 치료, 진정작용 있는 식물추출물, 손상된 피부치유효과(컴프리 뿌리에서 추출)

7) 레시틴 : 친수성성분, 수분을 끌어당기는 보습제로 작용, 모든 생명체에 존재, 천연유지제, 유화제, 황산화제(계란, 콩에서 얻음)

8) 카모마일 : 화끈거리는 피부와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 향알레르기 작용, 여드름, 건조, 극심한 민감피부에 사용(카모마일 꽃에서 추출)

9) 캄파 : 피부에 탄력을 주고 진정시키는 효과, 항염, 수렴, 청정, 혈액순환 기능촉진(신선함과 방부의 성질 가진 식물성 추출물)

10) 알로에베라 : 수분조절, 자외선 흡수능력, 화상치료제, 진정작용, 보습, 유연, 치료, 항염증 성질을 가진  
유연제

11) 로얄제리 : 진피조직 재생에 효과적(별에 의해 만들어지며 비타민B가 많이 들어 있으며 단백질, 지방, 탄  
수화물, 다량의 미량원소 복합체

12) 프라센타오일 : 피부신진대사 촉진으로 피부활성화 세포재생작용 가속화, 비타민과 여성호르몬 함유로  
노화 피부에 효과적(태반에서 추출)

13) 비타민 : 신체의 대사 기능과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 A(레티놀) : 표피의 건조나 각화에 효과적 주름살 개선(호박, 당근, 간)
- 비타민 B : 지루성 피부염, 습진에 효과적 피부세포 부활작용
- 비타민 C(아스코르빈산) : 항산화제, 미백제, 신선한 채소나 과일함유
- 비타민 D(칼시페롤) : 뼈의 발육에 관여하여 골다공증예방(버터, 우유에 함유)
- 비타민 E(토코페롤) : 암, 세포노화 등의 원인인 유해산소 제거작용 및 혈액순환 원활

## 4. 기초화장품의 목적, 기능, 역할, 성분

### (1) 클렌징

피부의 청결이 주목적이며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화장을 지울때 사용, 청정작용도 하며 보습제, 계면활성제, 알카리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홈클렌징, 클렌징로션, 클렌징워터, 클렌징크림, 아이리무버 등)

### (2) 화장수

청정, 보습, 유연, 탄력 효과가 있으며 신체를 청결히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피부표면에 바른다. (정제수 알코올, 보습제, 유연제, 가용 화제 등)

1) 유연화장수 : 각질층에 수분, 보습성분함유, 피부유연하고 매끄럽게 하면 거칠음 방지 비누 알카리성을 중화시키는 역할

2) 수렴화장수 : 수렴작용, 피지분비 억제작용, 산뜻한 사용감, 화장의 지워짐을 방지

3) 세정화장수 : 가벼운 색조화장을 지우거나 혹은 맨살에 대한 세안료로 피부를 청결하게 하기 위함

### (3) 유액

정상상태로 혼합되지 않는 두가지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화장수와 크림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유분량이 적고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이다.(피부의 모이스춰 밸런스를 유지하고 수분, 보습제의 역할을 하며 유분을 공급한다.)

### (4) 크림

크림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혼합되지 않는 2가지 액체 중 안정적인 상태로 분산시켜 유분, 보습제, 수분 등을 큰 비율로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 유연기능을 가지며 혈액촉진에도 효과적

1) 테이크림 : 주로 낮에 바르는 크림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보호

2) 나이트크림 : 유분이 많이 함유된 크림으로 저녁에 사용

- 3) 아이크림 : 눈가에 잔주름을 예방하는 크림으로 눈밑에 바름
- 4) 언더메이크업크림 : 파운데이션 바르기 바로 전에 빌라 피부색을 조절해 준다.
- 5) 바니싱크림 : O/W형 만으로 10~20% 유성분이 수상에 분산 유화한 것으로 사용감이 산뜻하다.

## 5. 향수

### (1) 방향제품의 구분(향료 함유물)

향수(퍼퓸) 15~25% > 오데퍼퓸 9~12% > 오데토왈렛 5~9% >  
오데코롱 2~7% > 샤워코롱 1~5%

### (2) 향취 타입별 특징

- 후로랄부케 : 여러가지 꽃향기들의 혼합으로 세련되고 로맨틱한 향
- 푸르티 : 레몬·오렌지와 같은 신선한 맛과 복숭아, 살구, 딸기 등의 달콤한 향이 복합
- 우디 : 이끼, 풀, 향나무같은 나무뿌리 냄새를 합친 목재냄새
- 오리엔탈 : 동물성 향료로 깊이있고 무거운 향취
- 그린 : 풀이나 젖은 나뭇잎에서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향취

### (3) 향수 사용시 주의점

- 흰옷 또는 피부에 직접 뿌리지 않는다.
- 향수 뿐만 부위가 태양광선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 직사광선은 피하고 보관은 15°C
- 자신의 기호에 맞는 향수를 선택해서 사용

### (4) 향수 사용법

- 향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스커트 안단 등에 사용
- 향수는 5~7시간, 오데코롱은 2~3시간 지속

## 6. PH(수소이온 농도지수)

-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표시하는 지수로 사람의 이상적인 PH는 4.5~6.5 정도이다.
- 산성과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용액의 PH범위는 0~14까지이며  
PH7일 경우는 중성, PH7이상을 알카리성, PH7이하를 산성이라 한다.

## 7. 유화와 가용화

- 유화 제품은 물에 오일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우유빛으로 된 상태로 혼합형은 친수성과 친유성이 혼합된 것으로 보습효과가 뛰어나고 안정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크림과 로션 등 애벌전상태)
- 가용화 제품은 물에 소량의 오일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 화장수, 에센스, 헤어토닉, 향수 등이 있다.